

하늘구상

작성일 : 2010. 10. 3. (일)

작성자 : 정형호 전도사 (서울 강남제일교회)

[10월 1일 금요성령집회를 참여하기 위해 월명동에 갔습니다. 성령집회를 참여하기 전 예수님 석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후, 성령집회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것과 저의 삶 속에 지은 죄들을 간절히 회개하며, 목 놓아 주님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도중 한마디 해주겠다고 하시며

“사랑해. 다시 올라가자.” 하셨습니다.

이후 더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구상에는 토를 달아서 안 된다.

하늘구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늘구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 주 예수의 구상이다.

그 구상의 실현을 가장 빨리 이루는 자가 선생이다.

이로써 하늘구상은 이 땅에서 실행되어지니

섭리사 모두는 나의 섭리사를 향한 구상에

절대 토도 달지 말고, 불만불평도 부리지 말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늘구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늘구상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되는 섭리사의 흐름을

빨리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여야 한다.

생명구원이 곧 핵심이다.

너희도 살아야 하고,

앞으로 올 나의 택한 생명들도 살리고자 하는

깊은 뜻을 깨닫고, 섭리사 모두는

절대 하늘구상에 감사함으로 뛰고 달려야 한다.

선생이 행하는 것은 곧 나의 구상이요.

선생의 구상을 받고 움직이는 사명자들의 움직임은

나 예수의 움직임이니

절대 서로 믿어주며 하나 되어 뛰고 달리는

섭리사가 되길 바란다.

특히나 섭리에 오래된 자들과 어른들이 걱정이다.

혹여 나의 구상에 불만불평을 가지고,

하늘구상에 오해를 하고 마음을 닫아 버리는 자들이 있을까?

내 노심초사한다.

섭리사의 어른들아.

너희는 어른이다. 너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노라.

나의 구상을 위해 그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 행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역할이다.

먼저 온 자가 먼저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먼저 하나 됨의 본을 보이며,

중심과 하나 되어 뜻을 이루어야 한다.

위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이끄느냐에 따라

밑에 있는 어린 지도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각을 살려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며 나이 먹은 티 내지 말고,

젊은 자들과 하나 되어 그 감각도 익혀라.

섭리에서의 청춘이 다 갔다 생각 말고

너희의 청춘의 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필 때이니

그 찬란한 꽃이 지기 전까지 너희의 삶을 다해

나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섭리사 모두는 들을지어다.

하늘구상에 절대 요동치 마라.

다시 말하지만 절대 토를 달지 말며,

그 계획에 불만불평도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 섭리역사의 주인은 나 예수이며, 내가 통치자이니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이 섭리역사가 더 창대케 되며,

주인이 이 섭리사의 맡을 갖고 지휘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맡기기만 하는 주 예수가 아니다.

나의 능력을 다해 너희 선생의 몸을 통해 역사를 펴며,

또한 선생이 세운 사명자를 통해

역사를 더 창대케 될 것이다.

재림의 역사도, 희망의 섭리역사의 뜻도 다 될 것이다.

이를 깨닫고 나 예수를 절대 믿기를 바란다.

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월권행위이며,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지만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많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이다. 곧 영성보다 육성이 강해서이다.

그러하니 모두 마음을 비우고,
내가 시키는 대로 순수한 어린양이 되어
내 말을 너희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흡수하여
온전히 행함으로 뜻을 이루기 바란다.

지금까지 하늘구상은 빛나간 적이 없었고,
기필코 이루는 구상이다.
기어코 사랑의 섭리역사를 세운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펼쳐질 하늘의 계획이
너희 섭리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 잘 보아라.

어마어마한 하늘의 뜻과 구상이 있으니 상상초월이다.
영상설교도 더 차원을 높일 것이며,
합봉문제 뿐만 아니라
이 섭리사 하나하나 세세 곳곳 내가 직접 선생 통해 살피
며
하늘의 계획과 재림의 뜻 속에 이루어야 할 역사의 뜻을
기필코 이루고 말게다.

너희는 그러하니 오직 나의 사랑에 화답하며,
주는 맛, 받는 맛,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일체되고 하나 되는 사랑 앞에 모든 것을 이루며,
오직 사랑으로 똬똬 뭉치는 사랑덩어리,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신부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한 선생의 조건이 있기에
그 모든 하늘의 구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이 구상에 대한 내 사랑의 마음에
너희가 사랑으로 화답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며
선생의 그 수고와 애씀과 노력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며 일체될 때
그 영광과 기쁨과 힘이 나에게도 선생에게도 돌아간다.
모두는 이를 알고 절대 사랑의 기준을 지키며
더 차원 높은 나 예수에 도전하며
나의 구상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한다.

너희와 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너를 향한 나의 구상도 알게 되니,
이 구상이라는 것 결국 사랑이다.
그 사랑을 깨닫고 섭리사 모두 나의 사랑을 받아라.
진정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제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너희와 나의 운명이 되어야 하며,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훼방을 놓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재림도 맞이하고
이 섭리역사의 운명도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며
나의 구상이 이 섭리역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비로소 지상천국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를 깨닫고 꼭 섭리사 사랑에 성공하여라.
알겠느냐?

그래. 그렇다면 우리 모두 사랑의 고백을 크게 해보자.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어디 한 번 고백해보아라.

(“사랑합니다.” 라고 큰 목소리로
진심어린 마음으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 사랑이 진심이길 진정 바란다.

너희의 진심의 사랑에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날마다 나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의 구상대로 성령의 불길 속에 뜨겁게 외치고,
뛰고 달리길 매일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사랑에 성공한 나 주 예수가 섭리사에게 전한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진정 이것이 사랑의 성공이요,
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니
진정 이것이 사랑의 성공이요,
나의 사랑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으니
이것이 진정한 나 예수의 사랑의 성공이며,
진정한 사랑으로 선생을 이 땅 가운데 세웠으니
나는 진정 사랑에 성공했노라.
선생 통해 나의 한 맺힌, 돌고 돈 짝사랑이 풀렸으니
진정한 사랑의 성공이라.

마지막으로
오직 사랑의 성공 속에, 하늘구상 속에
나의 몸 되어 뛰고 달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사랑한다. 진정 사랑한다.

사랑에 성공한 나 주 예수가 말하노라.

(이어서 예수님의 눈이 이상으로 보이며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촉촉한 눈빛이었습니다.)